2004년도 의원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목 포 시 의 회

목 차

Ⅰ. 공 무 국 외 여 행 개 요 - - - - - - - - - 3

Ⅱ. 세 부 일 정 표 - - - - - - - - - 5

Ⅲ. 방 문 지 주 요 활 동 - - - - - - - - - 7

1 우리와 북유럽의 지방자치를 비교해 본다 - 7

1. 핀란드에 관하여 - - - - - - - - - - - - - 7

2. 스웨덴에 관하여 - - - - - - - - - - - - - 12

3. 노르웨이에 관하여 - - - - - - - - - - - - 14

4. 덴마크에 관하여 - - - - - - - - - - - - - 18

2 북유럽의 도시와 사람들,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24

Ⅳ. 종 합 연 수 소 감 - - - - - - - - - - 47

Ⅴ. 주 요 활 동 기 록 - - - - - - - - - - 54

Ⅰ.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연수목적

가. 북유럽 국가의 선진 사회복지시설 및 환경과 도시관리의 실태를 파악, 조사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방안을 모색하고

나. 지방자치 현황 및 각종 모범사례 등을 수집하여 목포미항 가꾸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다. 항만계획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발전에 기여

2. 연수지역 및 일정

가. 연수기간 : 2004. 4. 20 ~ 4. 28(9일간)

나. 연수지역 : 핀란드(헬싱키), 스웨덴(스톡홀름), 노르웨이(오슬로, 플름, 구드방겐, 뮈르달, 고센부르그), 덴마크(헬싱고리, 코펜하겐)

다. 연수인원 : 15명(의원 9, 의회사무국 3, 목포시 2, 언론인 1)

라. 연수일정 : 별첨

3. 중점 연수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관련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장묘문화 제도 등

나. 환경과 도시와의 실태관련 : 쓰레기처리 관련 시설, 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등

다. 해양 항만 관련 : 해변공원, 해양 인프라 구축, 미항 등

라. 지방자치제도 관련 : 지방자치의 분권추진, 지방의회 제도 등

4. 해외연수자 명단

연번	소 속 위 원 회	직 위	성 명	비 고
1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단장)	배 종 범	
2	〃	의 원(단원)	노 상 익	
3	기획총무위원회	〃	전 성 룡	
4	경제건설위원회	〃	강 찬 배	
5	기획총무위원회	〃	이 기 정	
6	〃	〃	강 성 휘	
7	경제건설위원회	〃	임 형 연	
8	기획총무위원회	〃	허 정 민	
9	경제건설위원회	〃	김 훈	
10	의 회 사 무 국	전 문 위 원	김 승 인	
11	〃	의 정 담 당	정 광 순	
12	〃	직 원	엄 상 민	
13	목 포 시	국책지원담당	박 정 수	
14	〃	직 원	김 성 호	
15	KCC 방 송 국	기 자	이 기 표	(자비부담)

Ⅱ. 연 수 일 정 표

일자	도 시	교 통	시 간	일 정	비 고
제1일 4. 20 (화)	인천 프랑크프르트 헬싱키 〔핀란드〕	항 공 항 공	13:15 17:35 19:30 23:00	・인천국제공항 출발 ・프랑크프르트 도착 후 항공편 연결 ・프랑크프르트 출발/ 헬싱키 향발 ・헬싱키 도착 후 호텔 투숙 〔인천-프랑크프르트 비행 소요시간 11시간 20분〕 〔프랑크프르트-헬싱키 비행소요시간 2시간 25분〕	
제2일 4. 21 (수)	헬 싱 키	전용차량 SILJA- LINE	09:00 17:00	・광장시장, 우스펜스키사원, 올림픽스타디움, 시벨리우스 공원, 암석교회, 헬싱키 시청사 방문, 어시장 현장방문 ・초호화유람선 실자라인 승선하여 헬싱키 출발 ★실자라인(SILJA LINE) : 스칸디나비아 지역을 운항하는 대표적인 크루즈라인중 하나, 헬싱키-스톡홀름 구간은 2,853여명의 승객 탑승, 각종 SHOP과 식당, BAR, 사우나, 수영장, 카지노, 디스코텍, 미용실 등 부대시설 갖춤.(사용료 별도) 〔헬싱키 : 스톡홀름구간은 1시간 시차 〕	
제3일 4. 22 (목)	스톡홀름 〔스웨덴〕 오 슬 로 〔노르웨이〕	 전용차량 고속열차	08:30 09:00 16:00 20:32	・선내 조식,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도착 ・스톡홀름 항구 : 어시장 현장 체험 방문 구시가지 감라스탄, 전함 바사호 박물관, 시청사 방문 ・고속열차 X2000으로 스톡홀름 출발 ★북유럽 국제열차 탑승으로 자연경관 관람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 도착후 호텔 투숙	

일자	도 시	교 통	시 간	일 정	비 고
제4일 4. 23 (금)	오 슬 로 플 름 구드방겐 MAGICAL WHITE CAVE	전용차량 피요르드 -유람선	08:00	· 오슬로 출발/ 플름으로 이동 · 플름/ 구드방겐 구간 "피요르드 유람선"탑승 · 구드방겐 항구 시찰 : 유람선 선착장 및 항구등 시찰 · "MAGICAL WHITE CAVE" 관람후 동굴 특식으로 석식	
제5일 4. 24 (토)	구드방겐 플 름 뮈 르 달 오 슬 로	전용차량 로맨틱- 열 차	08:00	· 구드방겐 출발/ 플름 이동 · "THE FLAAM BANEN- 로맨틱 열차" 탑승 - 빙하계곡 및 90m의 호스폭포 감상, 뮈르달 도착 로맨틱 열차로 뮈르달/ 플름구간 환승후 플름 도착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교통(환경) 및 시설물 견학 (해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화로운 친환경 현장답습)	
제6일 4. 25 (일)	오 슬 로 고센부르그 (스웨덴)	전용차량	08:00	· 오슬로 명소 방문 및 어시장 현장체험 방문 ★국립박물관, 바이킹 배 박물관 방문 비겔란드 조각공원 및 시민시설 방문 · 오슬로 출발/ 고센부르그로 이동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아름다운 항구와 산악지대에 면해 있는 피요르드식 해안 드라이브 코스 답사) · 고센부르그 도착후 석식 및 호텔 휴식	
제7일 4. 26 (월)	고센부르그 헬싱고리 (덴마크) 코펜하겐	전용차량 FERRY	08:00	· 고센부르그 출발/ 헬싱보리로 이동 · 헬싱보리-헬싱고리 "국제 FERRY" 탑승 - 세익스피어의 무대인 "코론보그성" 및 해안도로 일주 후 코펜하겐 도착 ★현대화 된 어시장 시찰 (항만시설과 조화를 이룬 해양친화적 건물등을 견학)	
제8일 4. 27 (화)	코펜하겐 프랑크푸르트	전용차량 SK675 KE906	08:00 15:10 16:50 19:45	· 작은 인어상, 덴마크 전설의 게피온 분수대, 아마리엔보 궁전, 시청사, 의사당 및 왕궁 방문 · 코펜하겐 출발 · 프랑크푸르트 도착/ 연결편 항공 탑승 · 프랑크푸르트 출발 (수하물은 코펜하겐에서 인천공항으로 보내짐)	
제9일 4. 28 (수)	인 천		13:00	· 인천 국제공항 도착 · 입국수속 후 해산	

Ⅲ. 방문지 주요 활동내용

1 우리와 북유럽의 지방자치를 비교해 본다.

북유럽 4개국은 국민 평균소득이 최소 25,000불에서 45,000불로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높은 수준이며, 복지와 더불어 지방자치 또한 매우 발달한 나라이다. 일본식 지방자치제도를 본떠 적용한 우리나라와는 많은 점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고 있는 북유럽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본다.

1. 핀 란 드

사우나와 호수의 나라로 알려진 핀란드는 서쪽의 스웨덴, 동쪽으로는 러시아, 북쪽으로는 노르웨이와 접해 있다. 북위 60°에서 70° 사이에 위치한 핀란드는 총면적 약43만㎢ 중 대부분이 호수로 이루어져 있어서 실시 육지 면적은 매우 작으며 이중 1/3이 북극권에 속해 있다. 기후는 여름과 겨울의 차이가 매우 심하여 여름에는 평균 15°, 겨울에는 약 영하 10° 정도이다. 주요도시는 수도인 헬싱키를 비롯 투르크, 탐테레 등이 있다.

가. 수　　도 : 헬싱키

나. 인구 및 인종 : 약500만, 우랄핀족

다. 면　　적 : 33만 8,000㎢

라. 종　　교 : 그리스도교(복음주의 루터파)

마. 언　　어 : 핀란드어, 스웨덴어

바. 기　　후

o 5~8월은 낮이 19시간이나 되는 백야현상. 대체로 온화한 대륙성기후이며, 일부 북극권을 제외하고는 연간 기온차도 많지 않고 습도도 낮다. 수도 헬싱키의 기온은 18℃로 지내기가 좋다.

사. 정치 및 경제

o 단원제 국회를 갖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을 원수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며,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다. 국회는 임기 4년의 단원제이며, 1906년의 보통선거 때부터 유럽에서는 최초로 여성참정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아. 핀란드의 광역자치단체

□ 도지사는 임명직 지방장관

o 핀란드는 12개의 도가 있는데 이 도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며,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책정 및 개발상황을 점검하거나 사회정책,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획조정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덧붙여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르게 경찰권과 검찰청의 기능도 도에 있으며, 행정사건을 재판하는 행정법원의 기능도 도에 있다. 일종의 광역종합관청인데 도지사는 주민의 직접투표로 선출하지 않고, 내무부의 임명직 국가공무원이다. 도의원 역시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자치단체 내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형태로 정당의 추천을 받아 중앙정부가 선임한다.

□ 또 하나의 광역단체

o 핀란드에는 '도정부' 외에 또 하나의 광역단체가 있는데 '연합체'라 불리는 조직이 이것이다. 이는 몇개의 기초단체를 모아 만든 조직인데 이 연합체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이 주어지며, 연합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의회이다. 연합체의원은 임기4년제로 연합체를 구성하는 기초의회에서 선출한다.

o 이 연합체의 공무원은 의원처럼 자치단체에서 선출, 파견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체 독자적으로 고용하여 운용하는데 1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다만 이 연합체는 세금 징수권이 없으며, 재원은 중앙정부 보조금과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 연합체의 통합

o 이른바 연합체는 하나의 기초단체가 독자적으로 설치 운영하기 어려운 정신병원, 소방,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많이 설치되었고, 규모는 광역단체보다는 훨씬 작은 규모다. 이 연합체는 1990년대에 들어 중앙정부의 요청으로 184개의 연합체가 21개의 연합체로 통합되었으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 및 광역단체의 권한이양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되므로서 이 연합체가 실질적인 도정부 조직으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다.

자. 시정의 중심, 이사회

□ 기초의원의 규모와 후보의원

o 핀란드 기초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기초의회이며, 구성원은 4년마다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의원수는 최소 17명, 최다 85명이다. 의회에는 의장, 부의장이 있고, 의장 밑에 각종 위원회 위원이 있다. 의원의 선출방식은 우리나라와 달리 모든 의원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주민투표시 정규의원과 동시에 후보의원도 선출한다. 이들 후보의원은 각 정당마다 선출되어 정규의원이 의회에 출석 할 수 없을 때 또는 의원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의회에 출석한다. 핀란드에는 주민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지 않으므로 집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사회'이다.

o 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고, 각 이사마다 후보이사가 있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며, 모든 이사를 의회가 선출하고 임명한다. 이들 이사회의 이사장, 부이사장은 의원중에서 선출하는데 그 이외의 이사는 의원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며, 실제로는 간부급 공무원이 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 이사회와 시장

o 이사회는 자치단체 운영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다. 최고책임자는 형식적으로는 의원 가운데서 선출된 “이사장”이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의 수장이 이사회를 이끌고 있다. 그 때문에 공무원의 대표가 “시장”이라고 불리는 일도 많다.

o 이사회 밑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사회는 상당한 업무를 위원회에 위임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은 의회가 선임하는데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의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다. 이들 위원회에 임명된 시민은 비전문가라는 이유로 위원 취임을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차. 자치단체 공무원은 여성이 다수

o 핀란드는 인구가 495만명 정도되는 인구규모가 작은 국가이며, 이에 걸맞게 자치단체 규모도 매우 작다. 기초자치단체는 “코뮨”이라 부르며, 총 460개가 있는데 그중 60%는 인구가 6천명 이하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무리 작아도 인구가 3,4만 이상이어서 사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가 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다.

o 핀란드의 기초자치단체는 규모는 작지만 지방의원 수는 매우 많아 각 자치단체가 17-85명의 의원을 거느리고 있고, 1990년 현재 핀란드 전체적으로 12,882명의 지방의원이 있다. 지방의원이 국민 384명당 1명의 비율로 있는 셈이다.

o 더불어 핀란드에는 지방의회 의원 이외에 의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주민, 즉 의회에 딸 교육위원회나나 환경보호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지명되는 주민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각 정당의 당원이 ‘위원’으로 지명되고 있다.

o 자치단체 공무원의 숫자와 관련해 핀란드 뿐만아니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모두 자치단체 공무원의 숫자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1990년 기준 약 490만 인구중에 486,000명이 공무원으로 전체 노동력의 약 20%가 공무원이다.

노동자 5명가운에 1명이 자치단체 공무원인 셈인데 특히 보건위생, 사회복지, 교육분야가 많다. 1990년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의 35%는 보건위생 관계 공무원이고, 28%가 복지관계, 22%가 교사등 교육관계 공무원인데 이들의 78%는 여성이라고 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가장 활발한 것이 북유럽 국가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o 자치단체 경영의 효율화 측면에서 1990년대에 들어 자치단체 공무원의 증가가 억제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질적인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한다.

카. 지방분권의 추진

□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o 우리나라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이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핀란드 경우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중앙과 지방에 대한 대대적인 재검토가 이뤄지게 되었다. 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해서는 자신이 주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며, 그를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여겨졌다.

o 그 결과 1993년부터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었고, 예산제도가 개선되어 자치단체가 자기 재량으로 재원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물론 예산제도의 자율권 확대와 더불어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각종 권한이 이양되었는데 교육과 사회복지 권한은 대부분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의 권한이 되었고, 토지이용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되었다.

□ 경제위기

o 위와 같은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 배경에는 경제위기가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경제위기 속에서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노력이 필요했고,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에게 권한과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자체도 많은 부분 재검토 되었다고 한다.

2. 스 웨 덴

노벨상과 복지의 나라로 알려진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노르웨이, 동쪽으로는 핀란드와 접해 있다. 북위 55° 20′에서 북위 69° 4′에 위치한 가늘고 긴 스웨덴은 총면적 45만㎢ 중 약 50%가 산림이며 유럽 최대의 호수인 베네른을 비롯하여 약 9,600개의 호수로 이루어져 있다.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기후는 온화하며 남북의 기온차이가 심하여 년 평균 기온은 겨울에 북부 -13°, 중부 -3°, 남부 0°이며 여름에 북부 13°, 중부 및 납부는 18°이다. 주요도시는 수도인 스톡홀름을 비롯하여 고대도시 웁살라, 제2의 도시 욧데보리, 말뫼 등이 있다.

가. 수　　도 : 스톡홀름

나. 인구 및 인종 : 855만명, 원게르만족, 스웨덴인

다. 면　　적 : 45만㎢

라. 종　　교 : 그리스도교(복음주의 루터파)

마. 언　　어 : 스웨덴어 (그외 영어, 독일어 통용)

바. 시　　차 : 한국보다 8시간 느림(3/26～ 9/21 섬머타임 실시시 7시간 차이0

바. 기　　후

o 스탄디나비아 반도 서해안을 따라 흐르는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고위도인 점에 비해서는 기후가 온난하다. 그러나 남북의 기온차는 심하며 북부의 라플란드 지방에는 12월초～1월 중순에 태양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이와 반대로 여름에는 해가지지 않는 백야가 약 2개월간 지속된다.

사. 정치 및 경제

o 정치형태는 입헌군주국으로, 현재의 국왕은 1973년에 즉위한 카를16세 구스타프이다. 왕은 국가의 상징일 뿐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고,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의 당수가 수상이 되어 행정을 담당한다. 국회는 1971년 이래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임기 3년인 34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천연자원을 잘 활용하는 선진공업국이다.

아. 기　　타

o 노벨상의 나라로 유명한 스웨덴은 북유럽 4개국중 1997년 기준 893만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스웨덴도 노르웨이, 덴마크와 마찬가지로 입헌군주제 국가이며, 국왕은 상징적일 뿐이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북유럽 4개국과 같이 18세이며,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잡아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o 스웨덴은 2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스톡홀름 특별시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지사(지방장관)가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코뮨', '주'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동사무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교구'가 있다.

o 북유럽 지방자치의 대표적 특징의 하나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며, 의장이 이사장을 겸임하는 형태이다. 그리고 실제 집행기관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는 각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3. 노르웨이

빙하와 피오르드로 유명한 노르웨이는 스탄디나비아 반도 서쪽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스웨덴, 북쪽으로는 핀란드와 접해 있다. 북위 57° 57′에서 북위 71° 11′에 위치한 길고 협소한 노르웨이는 총면적 약 32만㎢ 중 약 80%가 산과 산림이며 경작지는 3%에 불과하다. 빙하에 의해 생긴 피오르드를 포함하면 해안선의 길이가 무려 28,000㎞에 달하며 빙하도 약 1,700개소가 남아있다.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기후는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주요도시는 수도인 오슬로를 비롯 베르겐, 트론하임 등이 있다.

가. 수　　도 : 오 슬 로

나. 인구 및 인종 : 420만명, 게르만 계통의 노르웨이인

다. 면　　적 : 324,000㎢

라. 종　　교 : 기독교 복음주의 루터교회파(94%)

마. 언　　어 : 노르웨이어 (영어통용)

바. 기　　후

o 국토가 북위 57~71°에 걸쳐 있으므로 기온의 차가 심하다. 북극권에 속하는 북부는 흑한지대이며, 남부는 멕시코 난류의 영향으로 비교적 온난하다. 북극권에서는 여름의 한밤중에도 태양을 볼 수 있고, 겨울의 갠 날에는 오로라가 밤하늘에 빛난다. 남부 해안지방은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온다. 노르웨이의 연평균 기온은 3~6℃이다.

사. 정치 및 경제

o 정치형태는 입헌군주국으로 헌법은 1814년에 제정된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으나 그후 여러차례 개정되었다. 국왕은 행정권은 가지고 있으나, 국회의 동의 없이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국회는 단원제로, 보통선거로 뽑힌 15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정당은 다당제로 현재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다. 노르웨이 경제의 주체를 이루어 온 것은 농업, 어업, 임업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 후 급속도로 공업화를 추진하였다. 그 원동력이 된 것은 풍부한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으로, 값싼 전력을 사용하여 철, 알루미늄 등을 정련해서 수출하고 있다.

아. 지방장관과 자치단체

o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국가가 된 노르웨이는 인구가 1995년 현재 430만명으로 매우 적은데 1986년 제2차 오일쇼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국가와 지방자차단체의 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고도 복지시스템의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대폭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o 노르웨이에는 총 18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439개가 있다. 수도 오슬로를 포함하면 19개의 광역단체가 되고, 이 광역자치단체의 지사는 핀란드와 같이 주민투표로 선출하지 않으며, 국가관료로 중앙정부에서 파견한다. 1905년 독립한 노르웨이는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 성향이 강한 국가였으나 1976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급속한 지방분권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지방장관 즉 지사의 권한도 대폭 줄어들고 현재는 재정적 측면의 감시기능 만을 가지고 있다.

자. 노르웨이 지방의회의 특징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겸하는 의회

o 노르웨이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등 두종류의 지방의회가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단체장이 없으며, 통치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의회이다. 즉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지방의회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겸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회의원은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데 선거는 핀란드와 같이 전체가 비례대표제이다. 구체적으로는 노동당, 보수당, 기독인민당, 중도당, 사회당, 공산당 등의 정당이 후보자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후보자 리스트에 대하여 주민이 투표하는 형태로 선거를 치른다. 작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자치단체만의 후보자리스트, 이른바 지역정당의 후보자 리스트를 만들 때도 있다.

o 의원수는 각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지방자치법에 인구규모에 따라 최소정원수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가 5천명 미만인 자치단체의 경우는 11명, 인구가 1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자치단체는 27명 등과 같이 정해져 있다. 노르웨이의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인구가 5천명 미만이고, 인구가 10만 이상인 곳은 제2의 도시 베르겐과 스트론하임 두곳 밖에 없다.

□ 남녀비율과 수당

o 노르웨이 지방의회는 남녀의 비율을 비슷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남녀의원의 균형이 이뤄지고 있으며, 의원의 보수는 없지만 실비변상은 있으며, 실제론 자치단체 자율로 약간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고 한다.

o 선거는 만 18세부터 투표권이 주어지면 외국인도 3년이상 노르웨이에 살고 주민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동시에 주어져 개방성이 높은 수준이다.

차. 의회의 구성과 운영

□ 위 원 회

o 노르웨이에서 주민의 선거로 선출되는 통치기관은 의회뿐이며, 의회는 의결권과 함께 집행권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업무를 의회 전체가 다 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집행기관으로 위원회를 두어 실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건설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등의 상임위원회가 집행기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들 위원회의 구성멤버는 의원이며, 위원수는 3명이상이다. 위원회 구성에서 핀란드와의 차이점은 주민의 참여 여부인데 노르웨이 지방의회 위원회는 의원만 참여하고 주민이 선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이 사 회

o 위원회를 통괄하는 것으로 이사회가 있다. 이사회는 전의원의 4분의 1로 구성되는데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도 이사회 당연직 구성원이다. 이사중에서 의원이 아닌 사람도 지명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o 이사회는 예산안 편성권, 재정계획의 수립, 세액안 제안권 등의 각종 권한을 가지며, 이사회 구성원은 각정당의 의석수에 비례하여 선정된다. 이와함께 이사회를 주재하는 이는 의회의 의장으로 의장은 입법기관으로서 뿐만아니라 집행기관인 이사회의 장도 겸하고 있다.

o 우리나라처럼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분리시킨 기관대립형 지방자치제도가 아닌 기관통합형 자치제도의 전형적인 사례가 북유럽 지방자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이 우리나라에 직수입 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정당정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전체 의원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를 뽑는 점은 검토되고 반영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

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자주재원

o 노르웨이의 경우도 북유럽의 특징처럼 사회복지, 보건위생, 교육분야의 공무원이 많고, 예산액이 많으며, 지방분권의 강력한 추진과 더불어 대부분의 권한이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경찰은 국가경찰권으로 남아 있는 점이 핀란드와는 차이가 있으며, 항만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고 있다.

o 노르웨이도 자치단체가 자주재원만으로 꾸려나갈 수 없는 점은 마찬가지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적어 절반정도를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1992년도 광역단체의 국가보조금 비율은 48.4%이고, 기초자치단체의 보조금 비율은 37.3%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금 제도는 1986년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에 의해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가 매우 약해지고 자치단체의 재량에 의해 운용되므로써 지방 권한의 신장 뿐만아니라 책임 또한 훨씬 높아지게 되었다.

4. 덴 마 크

게르만계 주민이 유사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으나, 8세기 이후 바이킹으로서 세력을 확대하였다. 18세기 후반, 해운업의 번영시기도 있었으나 나폴레옹 전쟁에 패배하고 1864년에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연합군에 패하여 2주를 독일에 할양하였다. 이후 외교적으로 중립을 유지해 왔으나 제2차 대전때 나치독일의 침략을 받았고 1944년에는 아이슬란드의 주권을 상실하였다. 49년에는 NATO에 가맹하였으나 전통적인 중립주의적 온건외교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가. 수　　도 : 코펜하겐

나. 인구 및 인종 : 원 게르만족, 511만명

다. 면　　적 : 2,220,074㎢

※ 한반도의 10배이지만 그린란드섬이 2,175,600㎢ 차지 본토 면적은 남한의 반도 안됨.

라. 종　　교 : 그리스도교(복음주의 루터교회파)

마. 언　　어 : 덴마크어 (젊은이는 영어에 능통)

바. 기　　후

o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대체로 온난. 여름 6~8월은 18~25℃, 겨울은 0~3℃, 6~8월은 거의 해가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을 볼수 있다.

사. 정치 및 경제

o 15세기 이래 계속된 입헌군주제. 국가원수는 1972년 왕위를 계승한 마르그레테 2세 여왕인데 이 왕조는 15세기부터 계속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실이다. 의회는 원래 양원제였으나, 1953년의 헌법개정으로 임기 4년의 단원제를 채택했으며, 이 헌법개정으로 지금까지 왕위 계승권이 없던 여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모두 만18세부터 부여되고 있으며, 정당으로는 사회민주당, 자유당, 그리스도교 국민당, 보수당 등이 있다.

아. 자치단체의 종류와 특징

o 덴마크는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본토의 넓이가 우리나라 남한의 2분의 1 정도인 섬나라로 인구가 5백만명의 국가이다. 덴마크 역시 핀란드와 노르웨이와 같이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2종류로 운영되며, 광역자치단체는 14개, 기초자치단체는 273개가 있다.

o 이중 기초자치단체의 인구는 거의가 1만명 이하이고 6만명 이상인 자치단체는 7곳에 불과하다. 광역자치단체도 20-30만명인 곳이 많고, 가장 작은 곳은 5만명에도 미치지 않는다.

o 북유럽의 전체적인 특징인 자치단체 공무원은 전체 인구의 10분 1 수준에 해당하는 50만명이나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정부시절 조직을 경량화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증가를 강력히 억제한 점을 생각할 때 대조적이다. 공무원의 숫자가 적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풍조에 비추어 볼때 북유럽 국가들의 충실한 복지환경의 기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량고용과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노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 자치단체의 조직과 기능

□ 의장의 임무

o 덴마크 지방의회는 광역의회 13-31명, 기초의회 5-25명의 의원이 있다. 의원들은 주민투표로 선출되고, 의장의 임기는 4년이다. 노르웨이나 핀란드와

마찬가지로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직무와 단체장으로서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단체장 호칭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장',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사'으로 불린다.

o 핀란드나 노르웨이는 지사가 국가 임명직이나 덴마크는 이와달리 지사는 광역의회에서 선출하고, 지방장관은 국가관료로서 중앙정부가 별도로 임명하고 파견한다. 여기서 지사는 자치단체장의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장관은 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유권자 및 외국인

o 덴마크도 노르웨이나 핀란드와 같이 18세부터 투표권을 가지고, 외국인도 3년이상 거주하면 선거권이 주어진다. 그리고 선출방식은 여기도 역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이다. 이곳에서도 전국정당과 달리 지방정당을 만들어 후보를 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는 전국정당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정당이 많기 때문에 정권의 형태 또한 연립정권형태라고 한다.

차. 옴부즈만 제도

o 덴마크에는 핀란드나 노르웨이와 달리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데 1954년에 최초에 도입되었다. 옴부즈만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와 독단적인 행동으로부터 주민을 지켜온 제도로 재판과 국회의 활동에는 역할이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군대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전개한다. 이 옴부즈만은 실제로 국가기관의 일종으로 총리나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임명한다. 뿐만아니라 임명권자인 국회는 옴부즈만의 일상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

o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대리인 감시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행정의 결정사항을 뒤집을 권한, 시민의 피해를 판결할 권한, 공무원 처벌권은 없지만 형사상 절차를 관계당국에 요청할 권한이 있으며, 담당기관에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정착된 이 제도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도입을 검토할 만한 사항이다.

카. 지방분권

o 지방분권이라고 했을때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 집중해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옮기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지방분권은 덴마크에서도 19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큰 과제로 설정되어 실제로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었다고 한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방분권에서처럼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중시된 점이 다르다. 이후 1990년대 지방분권이 더욱 추진되어 현재는 국가나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일에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는 핀란드나 노르웨이 보다 훨씬 전인 1979년에 이미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정도로 재원과 권한의 배분이 핵심 내용인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5. 북유럽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나라와 비교점

우선, 의회제도의 특징을 볼때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기관 대립형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곳은 기관통합형 의회제도를 취하므로써 주민투표로 선출된 의회가 시민의 생활을 직접 책임지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어떤 정당이 집권정당이 되든지 간에 자신의 이념과 정책, 노선에 따라 일관되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주민들 또한 정당의 정책과 집행 전체를 다음 투표때 반영하므로서 정당에 의한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으로 선출방식을 볼때 우리나라는 개인중심, 인물중심의 선출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은 정책과 노선을 중심으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한계를 드러내며, 고비용 선거, 지나친 권력지향적 정치문화 형성 등 부정적 측면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가는 형식으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여 성과를 보고 있으나 현재의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보다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국민들과 정당들은 비례대표의 비율을 훨씬 높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유럽 4개국 전체가 정당중심, 정책과 노선중심의 선출방식으로 전체 후보자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한다. 그러므로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심적인 내용은 정당의 정책과 노선이 되므로써 개인중심의 선거에서 오는 과도한 정치비용, 부정선거, 지나친 권력지향적 정치문화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소선거구 제도가 아닌 대선거구 제도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제를 취하므로서 소선거구제도에서 오는 의원의 전체 대표성 미흡 등의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극복된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기초의회 선거에서는 선거과열 방지의 명목으로 정당표방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는데 2003년 헌번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올해부터 기초의회도 정당표방이 허용되게 되었다. 그결과 과거 음성적 내천 방식으로 정당의 선거개입이 이뤄진 것이 완전 개방되어 자유로운 정당표방이 이뤄지고 있는데 규모가 적은 기초의회라고 할지라도 책임정치 측면에서 볼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다. 북유럽 4개국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인구밀도 또한 낮다. 반면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역사가 길고, 정착된지가 오래되어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매우 적다. 대다수가 1만명 미만의 기초자치단체로 이뤄져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50만명 인구를 가져도 기초자치단체이며, 최하가 농어촌 지역 군단위로 여기서도 최소 3-4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는 매우 큰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수가 절대적으로 많다고만 볼 수는 없다.

덧붙여 2003년 지방의원 활동수당 인상과 병행해서 지방의회 의원수를 줄여한 한다는 의견도 있기는 하나 우리나라 국민정서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정식 급여제를 도입할 여건이 성숙된 단계가 아니라면 의원숫자 축소가 지방의회 활성화의 본질적 방안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의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북유럽 또한 일반적으로 급여라기 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당의 형태로 실비를 변상 받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급여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도록 해놓은 점도 특징이다.

다음으로 지방분권을 보면 지방분권의 강조와 지방자치의 이념적 측면, 즉 주민의 자기 의사와 책임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삶을 결정한다는 원리에 따라 당연히 지방분권의 강화가 이뤄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방분권 추진의 경제적 측면을 볼때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발전된 중앙집권형 복지국가 모델을 유지해온 이들 국가가 전세계적 오일쇼크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방편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한편 재정운용과 지역사회 개발에 있어 자치단체에 대폭적으로 책임을 줌으로써 실제론 중앙정부의 정치적 책임 및 재정부담 또한 줄이는 방향에서 지방분권이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산 측면에서 볼때 지방분권과 자율성 향상의 핵심적 사항이 국가보조금 지급 방식의 변화로 볼 수 있는데 덴마크는 1979년, 노르웨이는 1986년, 핀란드는 1993년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므로써 지방분권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의 지급권한을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를 자연스럽게 중앙에 복속시키는 통제기능을 수행했는데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으로 그러한 부분이 전면적으로 개선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현실화 시점이 얼마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포괄보조금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중앙정부 예산확보를 위해 부처별로 이리 뛰고 저리 달리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부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 있는 상황의 변화가 눈에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예산편성과 운용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포괄보조금 제도의 도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책임성에 기초한 예산운용의 철저한 연구와 기획이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뤄져야 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여정부의 8대 국정과제중의 하나가 지방분권 추진이다. 이러한 부분이 년차적으로 지방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실화 되어야 하는데 집권 초 초기의 의지가 그간의 정치과정에서 사라진 느낌이다. 권한의 이양과 위임, 재원의 이양, 지방의 특화성장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거나 권한은 생색내기용으로 주고, 잡무와 실무는 늘리는 방식의 권한이양과 재원의 배분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② 북유럽의 도시와 사람들, 역사와 문화를 만나다.

이번 목포시의회 여행단이 방문한 나라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4개국이다. 8박9일 동안의 짧은 기간에 4개국을 여행하다 보니 주마간산식이 많을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그런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행단원 모두는 우리나라, 목포와 비교하며 배울점은 무엇인가를 쉼없이 연구하고 검토했다는 점을 밝힌다.

1. 인천에서 프랑크프르트-그리고 핀란드 헬싱키까지

가. 국제정세와 여권수속

4. 20일 전체인원 15명으로 출발한 목포시의회 여행단 일행은 인천에서 독일 프랑크프르트까지 무려 14시간의 긴 비행기 여행으로 도착하여 다시 2시간 30분을 날아 헬싱키에 도착하였다. 사실 비행기를 많이 탈 기회가 없는 여행 단원들로서는 긴 비행시간도 지루함으로 다가오는게 아니라 먼나라 여행에 대한 궁금함과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국제적으로 북유럽 항공의 중심지인 프랑크 프르트 공항은 9.11사건, 이라크전의 영향으로 인해 여권수속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체크가 심하다. 불편한 점은 있지만 국제정세의 불안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 생각하며 이해를 한다. 그러나 옆줄을 보니 너무 간단하게 하는데 왜 하필 여행단원이 선줄은 앞의 한두 사람을 붙잡고 30분 이상을 지체하니 애가 탄다. 문제가 있어 보이면 옆으로 대기시키고 길게 늘어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지 원… 동료의원은 심기가 불편한 것을 투덜거림으로, 이마에 흐르는 땀으로 보여준다. 앞에서 운좋게 먼저 들어간 가이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채 기다린다.

게다가 유럽연합(EU)국 사람들은 여권수속도 없이 곧바로 들어간다. 부러움과 함께 유럽통합의 힘과 실용성이 느껴진다. 우리 동양인들은 몇십미터 길게 줄을 늘어뜨리고 거북이 걸음처럼 수속을 밟고 있는데도 말이다.

나. 핀란드를 만나다.

□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의 특징은 북유럽 국가들중 유일하게 입헌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이며, 자연환경적으로는 전형적인 빙하기 지형의 나라로 전국토의 75%가 숲이고 10%가 호수인 숲과 호수의 나라이다.

핀란드 뿐만아니라 북유럽의 기후 특성이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무가 옆으로 굽은 것이 없고 위로 죽죽 뻗어 있다. 정말 우리나라처럼 굽은 것이 대부분이고 위로쭉쭉 뻗은 나무를 찾는 것이 어려운 점과 대조적이다. 그렇게 된 것은 한점이라도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한 나무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다.

발달한 숲은 목재산업을 발달시켰고, 우리에게도 친숙한 자일리톨 껌의 재료가 되는 자작나무는 지천에 깔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자작나무는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는데 껍질은 자일리톨 껌의 원료가 되고, 잎사귀는 사우나에 사용하고, 목재는 가구와 주택산업에 사용된다고 한다. 핀란드에서 숲은 자연이 준 천혜의 자원일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가꾸는 정책적 산물이기도 하다고 한다.

더불어 물이 많은 관계로 수력에 의한 전력산업이 발전하여 핀란드 부의 비중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고 한다. 숲과 물이 소비되고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가꿔지고 보존되면서 국가의 경제적 원천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맑은 물을 가진 나라이면서 추운나라 이다보니 국민 3명당 1개의 사우나를 가질 정도로 사우나가 많은 사우나의 원조국가이며, 산타클로스의 원조도 핀란드에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때 핀란드 또한 지정학적, 역사적으로 주변강국으로부터 압박과 투쟁을 공유하고 있으며, 650년간 스웨덴의 식민통치를 받았고, 러시아로부터는 150년간 통치를 받았다.

식민역사와 상처를 복지국가 실현과 성실한 국민성으로 슬기롭게 극복한 그들의 저력을 생각한다.

□ 부패가 없는 나라

핀란드가 가진 최고의 명성은 국제투명성지수(CPI) 세계 1위(2000, 2001, 2002)의 부패없는 국가라는 점이다.

핀란드가 부패가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잘 정비된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부정의 필요성이 적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업수당, 주택지원, 각종 연금혜택 등의 수준높은 복지혜택으로 노숙자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

뿐만아니라 인구가 500만명에 불과하여 세무당국이 국민들의 예금계좌를 용이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일반인들도 공직자의 재산내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어 공공분야에서 구조적으로 부정부패가 성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심지어 노점상들도 신용카드를 받고 상거래 할 정도로 상거래 관행이 공개적인 점도 부조리가 없는 환경이 되고 있다.

또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검찰총장, 사정감독원장의 임기가 정년까지 보장됨으로써 정권교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있는 사법권 행사가 가능한 구조이다.

종교적으로는 국민의 90%가 루터교를 믿는데 매주 교회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나 문화와 관습이 근면과 절제를 미덕이 정착되어 있고, 국민성이 교과서적이라 할 정도로 불필요한 융통성을 잘 보이지 않고 주어진 규정을 잘 따르는 편이라고 한다.

신문과 방송을 보면 기사의 첫들머리가 늘 정치인과 기업인의 부정과 부패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속에서 인구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투명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치경제분야 등 사회 각계 각층 지도자들의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며, 소년기부터 전체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 현재 및 미래 경쟁력지수 1위의 나라

200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제경쟁력지수(GCI)가 세계 1위라는 점이다. 핀란드가 가진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국민과 정부의 노력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자원만으로 경쟁력이 높다면 아마도 사우디나 소련 또한 절대 예외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 500만의 나라에 세계 1위를 다투는 이동통신 기업 노키아의 본사가 있는 것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이동전화 및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제일이며, 북유럽 4개국의 동일한 특징이긴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대단히 활발하다. 핀란드는 세계 최초로 1906년 여성의 참정권을 부여할 정도로 남녀평등의식이 정착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중 여성의원이 75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각료 18명중 8명이 여성일정도로 양성평등 수준 또한 높다.

우리나라 또한 이동통신 분야에서 세계 최고와 겨루는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더욱 과감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지만 핀란드의 경쟁력이 원천기술의 보유에서 출발한다면 우리의 경쟁력은 원천기술이 부족한 상태에서 있는 점이 문제이자 개선과제이다.

또한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성국회의원이 10%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여성비율 또한 점증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동일한 수준의 비율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십년이 필요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양성평등의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여성참여에 대한 보다 많은 제도적 보완과 의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이다.

목포시에서도 여성간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동일한 조건이면 여성을 우대하는 등 여성의 참여와 기회확대에 관심을 가져오고 있다. 이제 이러한 정책과 흐름이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확산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복지의 나라

각종 연금 뿐만아니라 아동과 육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잘 된 나라로 핀라로 유니세프 통계에 의하면 1세미만의 유아사망율이 0.4%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여성이 출산할 경우 평균 1-2년 유급 출산휴가가 보장되며, 남편의 동반휴가 또한 2-3주가 주어진다고 한다.

예산의 재정배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 보건분야로 전체 예산비중의 46%를 차지하고, 건설교통분야가 28%, 그리고 16%가 교육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북유럽 4개국 전체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핀란드 또한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의료 또한 공공의료가 중심이며 무상이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걱정거리 중의 하나가 높은 자살율이라고 한다. 겨울이 길어 집안에 틀어밖혀 있는 시간이 많고, 생활적으로 걱정이 없다보니 사회 전체적으로는 역동성과 진취성이 떨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적다고 한다. 그런 결과 무료한 삶에 대한 반작용인지는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율은 선진국 사회복지의 그늘임이 틀림없다.

다. 헬싱키를 배운다.

□ 옛건물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시청사

4.21일 수요일 여행의 두 번째날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의 시청사를 비롯하여 광장시장, 우스펜스키사원앞 광장, 올림픽경기장, 시벨리우스공원, 암석교회 등을 방문하였다.

우리에게 1950년대 헬싱키 올림픽으로 인해 친숙한 이름인. 헬싱키의 시청사는 1833년에 건축되어 졌는데 처음에는 호텔로 지어졌다고 한다. 이것을 개조하여 현재는 청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러시아풍의 건물로 식민시대의 영향이 건축물에 그대로 남아 있다.

시청사 방문에서 느낄 수 있었던 점 중의 하나는 옛건물을 가급적 그대로 개조해서 사용한다는 점이며, 서구사회의 보편화된 예약문화에서 알 수 있듯이 시청사를 방문하거나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약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여행이 좀더 세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느끼는 순간이다.

다행히 가이드의 탁월한(?) 역량으로 예약없이 청사를 방문하고도 안내를 받아 시청에 관한 친절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365명이 근무하는 시청내에서 우리를 안내해준 공무원은 우리시로 말하면 국장이라는데 본인이 부하직원의 도움없이 혼자 직접나와 설명하는 것을 보고 형식과 격식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와 차이점을 느꼈다.

□ 헬싱키 시청사앞 노점상을 보며

헬싱키 시청앞 카우파 광장에는 어패류와 과일, 야채, 그리고 빵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들이 꽤 있었는데 일정시간 동안만 장사를 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정확히 철수하기 때문에 관리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한다.

우리 목포시의 노점상 단속을 생각해보면 많은 인력과 장비를 끊임없이 투입하고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분야인데 잘사는 나라의 힘이 그것인가 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시청앞 광장에 우리나라 노점상 같으면 24시간 문을 열어도 부족할 판인데, 게다가 시공무원이 나와 철수를 요구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버티기 위해 죽기 살기로 덤빌 수 밖에 없을텐데 라는 생각이 든다. 안정된 사회복지, 노숙자의 부재, 융통성이 없다 싶을 정도의 준법성 등이 대통령궁과 시청사 앞 카우파 광장 노점상의 차분함과 낭만성을 더해 주었는지 모른다.

□ 우스펜스키 사원앞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 동상 앞에서

우스펜스키 사원은 핀란드 루터교의 대표적 사원인데 깜작 놀란점은 사원 앞 광장에 세워져 있는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동상이었다.

스웨덴 650년 식민통치, 러시아 150년의 식민통치를 경험한 핀란드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국가생존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물이라는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세상에 자기나라를 정복한 제국의 왕의 동상을 수도의 한복판에 버젓이 세워 놓다니 그것도 모자라 스웨덴왕의 동상까지도 도시에 세워놓다니, 자존심이 없는 것인지, 눈물겨운 생존전략인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 자연스런 현실로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강자에게 굽히는 척하며 국가의 생존을 모색하는 전략과 조선시대 중국에 조공을 바치면서 국체를 보전하는 전략과 본질적으로 유사함을 느꼈다면 생각의 비약일까?

하여간 핀란드 국민들이 과거의 지나간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이건, 부끄러운 역사이건 간에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교훈을 찾고 오늘에 활용하는 지혜를 보면서 옛것을 보존하는 것에는 관심이 적고, 그저 새것을 만들기 바쁜 우리시의 행정과 우리사회를 생각해 본다.

□ 헬싱키 시의회를 알아보다.

헬싱키의 시의회의 역사는 1932년에 시작되어 자그만치 7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전체 시의원은 85명이고, 앞서 얘기 했듯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로 전원을 선출한다.

시의회 각 정당의 의석 비율을 보면 중노당이라는 보수색깔의 정당이 25석, 녹색당이 22석, 그리고 사민당이 18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진보적인 사민당과 녹색당을 합치면 중노당보다 의석수가 훨씬 많아 진보적인 정치문화의 특징이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녹생당의 약진은 사회복지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뿐만아니라 환경선진국으로의 정책개발과 위상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나라에서도 녹색당류의 정치실험이 계속되는 것은 이러한 사례가 많이 참조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번 4.15 초선에서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10% 정당지지율과 약진이 두드러지는 결과가 있었으나 사회의 주류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헬싱키 시의회의 의석분포를 보면서, 더불어 정치문화의 수준을 보면서 우리사회 진보세력의 확장과 역동적인 진출을 다시금 기대해 본다.

□ 차창 밖 거리의 풍경들

북유럽 복지국가의 걱정거리 중 하나가 역동성의 부족이라는데 춥고 긴 겨울, 안개도시적 특성이 사람들을 우울하게 하는지 모른다. 그렇다 보니 헬싱키의 도시계획에서 최근의 건물들은 철저하게 밝게 계획한다고 한다. 중세시대적인 건물형태들과 그것이 갖는 관광객 유인효과도 있겠지만 사회적 역동을 살리기 위한 현대적 도시계획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헬싱키는 시민 안전지수가 세계 2위일 정도로 안전한 도시라고 한다. 잘사는 결과인지 국민성의 결과인지 아마도 양쪽다 조금씩 영향은 있겠지만 우리 목포시도 이런 지수를 개발하고 시민을 일깨우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천되었으면 좋겠다.

북유럽 4개국 전체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모든 운행차량들이 낮에도 라이트를 켠다. 우리나라도 얼마전에 “주간전조등켜기” 정책이 시행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사이엔가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았다. 별효과가 없어서였는지, 당국의 정책의지도 강력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막상 북유럽에 와보니 긴 겨울과 잦은 안개, 이른 저녁 등으로 인해 주간에 전조등을 켜는 것이 필수적이겠다는 생각이 든다. 교통문화도 나라와 지역의 특색에 맞게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는 법이라는 점을 새삼 교훈으로 얻는다.

전반적으로 도시의 느낌이 차분하고 조용하다는 느낌이고, 차량들도 대체적으로 크다는 느낌이 없다. 우리나라보다 작은 차들이 많다. 허장성세를 멀리하고 실리를 중시하는 문화의 힘이 느껴진다.

숲의 나라답게 도시가 숲속에 둘러 쌓여 있는 공원도시라는 느낌, 도시의 매력이 과거와 현대의 공존이며, 기초자원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헬싱키의 바위를 뚫어 만든 암석교회, 시베리우스 공원을 들러 노벨상의 나라 스웨덴의 스톡홀름으로 향한다.

라. 스웨덴에서 배운다.

□ 헬싱키에서 타고온 호화유람선 실자라인(SILJA LINE)

세부일정표에서 나오듯이 실자라인은 스칸디나비아를 운항하는 대표적인 크루즈 선박의 하나로 우리 여행단이 탄배는 2,853명의 승객이 한꺼번에 탑승할 수 있는 대형 크루즈선으로 안에는 각종 상점들이 즐비하고, 사우나에 수영장까지 하나의 도시처럼 만들어져 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유람선들도 있겠지만 이들의 선박기술과 규모에 감탄사가 나온다.

배속에서 하룻밤을 달려 스톡홀름에 도착하는 일정인데 배를 탄 느낌이 전혀 없다. 기술이 워낙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나도 호수같은 피요르드의 고요한 바다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끝없이 펼쳐진 호수와 섬들, 섬들 속에 별장으로 보이는 예쁜 집들이 어우러져 이곳이 잘사는 나라임을 짐작케 한다. 그 옛날 바이킹이 섬과 섬사이를 민첩하게 왕래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절로 난다.

실자라인을 타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 목포의 조선업을 생각해 본다. 아직까지 호화유람선의 선박건조보다 유조선, 대형화물선 수준에 서 있는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고부가가치 관광선, 유람선, 요트 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산업이 목포지역 조선업의 중심으로 서기 위해서는 조선업자들의 노력뿐만아니라 목포시를 비롯한 학계, 중앙정부 등 산・관・학이 공동으로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 사회민주주의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

스웨덴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이자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는 복지국가가 된 것은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발달 및 사회보장제도의 완비 등 때문이다. 세계의 모범이 되는 사회보장제도는 1932년부터 정권을 담당해온 사회민주노동당 내각에서부터 출발했으며 그사이 정권이 바뀌면서도 복지의 핵심적 기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스웨덴은 다른 북유럽 3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 의료, 실업보험, 노인복지등 공공서비스는 완전무료이다. 그런 까닭으로 개인적으로 저축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며, 저축은 겨우 휴가 등을 위한 비용에 지출되는 것이라고 한다. 유럽 사람들이 저축을 하지 않으며, 모아둔 돈도 휴가때 다 써버린다고 하기에 그들의 의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높은 복지수준으로 인해 저축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저축은 오늘의 기쁨을 자제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미래의 복지제공이 확실한 상태에서는 유럽식의 저축문화가 형성된다 싶다.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노재보험, 실업보험, 아동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높은 공업수준, 완전고용, 원만한 노사관계 등으로 높은 문화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국민의 조세부담율은 50% 정도로 북유럽의 특징이 고물가와 고율의 세금이라고 말하는데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높은 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매우 적다고 한다.

최근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고, 부유층이 사는 강남구 등에서 정부의 세율조정에 반발한면서 일부 세금의 세율을 낮추는 것을 보면서 조세저항을 빈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들 국가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정부정책 순응도가 단순히 억압의 결과가 아니라 투명한 정부, 시민을 위해 진정으로 일하는 공무원상 속에서 형성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 북유럽의 인구문제-저출산

북유럽 전체적으로 인구의 저출산이 중대한 국가문제이다. 스웨덴도 예외는 아니어서 신생아 출생률은 세계 최저이며, 인구의 자연증가도 세계 최저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늘 노동력이 부족하고, 출입국은 자유롭기 때문에 직업을 위해 장기체류하는 동유럽 등지에서 온 외국인이 많다고 한다. 참고로 스웨덴 인구의 8분의 1은 외국인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도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고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그룹에 해당하여 인구 증가대책을 추진 한다고 한다. 얼마전까지 억지로 인구를 줄이더니 이제는 거꾸로 더 낳으라 출산을 장려한다. 과학적 인구정책 부재가 낳은 결과이다. 통계청장의 말을 인용하면 “2030년대에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82세까지 일해야 한다”나.....

덧붙여 북유럽 국가들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많이 입양되었다고 하는데 스웨덴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 입양아 문제는 저출산과 관련있는 문제이지 노동력 부족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세계적으로 몇십만명의 우리 아이들이 입양되어 있다고 볼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이들이 조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 북유럽의 종교와 사회적 영향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4개국은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국교화 되어 있다. 그래서 세금조차 교회세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열성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숫자는 거의 없으며 주로 노인층이 교회의 신자층을 형성한다고 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루터교회는 가톨릭에 저항해서 일어났던 교회개혁운동의 산물이며, 노동에 대한 근면과 성실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북유럽 국민성 형성에 크나큰 기여를 했다.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 국가이면서 왕정이 유지되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국교를 지정해 놓은 것은 이율배반적이라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국민전체에 수용되고 인정되고 있다니 인간의 의식은 참으로 오묘하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 스웨덴 경제에서 배운다.

스웨덴은 북유럽 4개국중 가장 공업이 발달한 나라이며, 그 중심은 철강, 기계, 조선 펄프, 제지로 이 분야가 전체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잘알려진 사브 자동차, 세계 3대 이동통신 업체인 에릭슨 등이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식량을 비롯하여 에너지등 60%를 수입에 의존하여 무역의존도가 높다. 이러한 여건에서 스웨덴은 전통적으로 저관세 정책을 취해 왔으며, 노동자의 경영참가 방식인 종업원 기금제도를 1984년에 도입하여 지금까지 운용하고 있다. 이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언론을 통해 언급되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노동자 복지차원에서 제기된 것이다.

현재 스웨덴은 EFTA와 EC에 가입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무역활성화와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직접 피해로 다가오는 농업부분에서는 강력한 저항을 하고 있으며, 한-칠레 이외에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진 곳은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개방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면 개방농정에 따른 확고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칠레를 제외한 여타 국가들과도 FTA의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또 하나 스웨덴의 주당 노동시간은 40시간이며, 이는 상가에도 대부분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최근 북유럽 또한 소비성향이 강화되면서 몇년전까지 토, 일요일에는 열지 않았던 백화점 개장 시간이 야간까지 연장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조용한 북유럽의 밤에도 생명력 강한 자본주의적 상업의 물결이 소리없이 엄습해 들어가고 있다. 이를 환영할 것인가?. 우려할 것인가? 마음은 우려스러우나 현실은 막을 수가 없다.

마. 스톡홀름에서

□ 북구의 베네치아 스톡홀름

실자라인을 타고 들어온 4월 22일 스톡홀름의 첫인상은 무척 깨끗하고 활발하다. 북유럽 도시중 가장 인구가 많은 약 75만으로 북구의 베네치아라 불리운다. 실제 스톡홀름은 14개의 섬으로 이뤄진 도시이며 도시발전 과정에서 하나하나 섬들을 연결하여 오늘의 스톡홀름이 되었으며, 빈민가가 전혀 없는 점이 스톡홀름의 자랑이라 한다.

이번에 방문한 북유럽 전체 도시들에서 공통적인 현상으로 인도를 설치할 때 바닥을 벽돌보다 대리석을 깔아 인도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며, 돌로 인도를 까는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상업이 활성화 되었다고 보여지지 않는 북유럽의 도시들의 거리에서 눈에 가장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은 건물들의 높이가 들쭉날쭉 하지 않는 다는 것이며, 모든 건물들이 색이나 문양, 디자인이 같은 것이 거의 없다. 아마도 건축시부터 철저하게 도시계획상 규제를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것이 역사와 전통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부심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느낌이다.

□ 관공서 건축물에 대한 자부심과 자랑

스톡홀름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중의 하나로 스톡홀름 시청사가 있는데 스톡홀름 정도 400년을 기념하기 위해 1911-23년에 지어진 이 건축물은 그 아름다움과 화려함으로 최고의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다. 청사내 노벨상 수상식 후 축하연이 열리는 황금의 방 등을 포함하여 시청사 전체는 스웨덴 융성의 시기의 상징이기도 하며,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공서의 기능 뿐만아니라 관광상품으로서의 기능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시민이면 누구나가 아끼고 자랑한다는 이 건물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관공서들이 예술성과 건축성보다는 기능성과 경제성에 의존한 전형적인 경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국민정서상 관공서 건물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예술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 그다지 호의적인 아니라는 건축문화적 특징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관공서들이 담장 허물기나 여유 공간에 쉼터 기능을 만들어 가듯이 앞으로는 건축물 자체도 실용성과 효율성 뿐만아니라 예술적 가치와 기능도 함께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과 관광상품화

스톡홀름의 출발지,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스타센섬의 감라스탄 지구는 지역전체가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역사문화자원지구이다. 13세기부터 조성된 이 구시가지는 세계에서 가장 긴 좁은 옛 골목길이 유명하고 옛날 형태의 상점들도 그대로 남아 있어 스웨덴인들의 자국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관리 노력을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우리시에서는 용역까지 추진하여 역사문화의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흐지부지한 상태에 있다. 이 상태에서 중앙정부 예산확보에 실패한다면 역사문화의 길 조성을 통한 구시가지 활성화와 관광효과 증대는 사실상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식민지시대, 근대문화유산이 중심이기는 하지만 우리 역사의 한 과정을 역사문화의 길로 조성하여 활용한다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 예산확보 노력과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요청되는 시점이다.

□ 스톡홀름에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보고

스톡홀름에서 거쳐온 헬싱키를 생각해보면 인구의 차이 및 도시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역동성과 활력을 더 느낄 수 있었다. 경제력의 차이인지 나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통행하는 차량의 양 뿐만아니라 차의 크기도 스톡홀름이 더 큰 것 같은 느낌이다. 차들중에는 헬싱키와 스톡홀름 모두다 일본차들이 정말 많이 진출해 있다는 점을 금방 알 수 있는데 헬싱키에서는 별로 보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심심찮게 볼 수 있어 외국 나오면 다 애국자 된다는 농담같은 말이 실감이 온다.

□ 스톡홀름 시의회에서

스톡홀름시 인구는 75만명이며 시의회는 총105명으로 구성되는데 2004년 올해까지 80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시의회는 매주 월요일 오후에 회의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시의원중 50명이 여성이다. 그리고 시의회내 제1당은 사회민주당으로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현실적 성공이 그대로 드러난다.

북유럽 전체의 특징인 매우 활발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지방자치 분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의원선출 방식에서 보여지듯 정책과 노선 중심으로 시민들이 정치적 선택을 한다는 점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80년전에 만들어진 책상과 의자를 그대로 사용한다는 시의회의 회의장을 보면서 우리도 몇 년 쓰지도 않은 책상을 요즘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갈려고 하기 보다 깨끗하게 쓰면서 50년 후에도 후배 의원들이 그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 스웨덴 제2의 도시 욧데보리의 중국음식점

여행에서 가장 힘든 것이 먹는 것이라고 한다. 여행을 한다는 뜻은 음식으로 치면 다른 음식을 먹는 시간을 가진다는 뜻인데 타국 음식맛이란게 쉽게 길들여지지 않아 일행중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 음식의 별볼일 없음(?)에 투덜거리기도 한다. 여행은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걸 불평하면 되겠냐는 여행가 다운 분들도 계시지만 입맛에 안맞는 것은 안맞다고 해야지 어쩌랴!

항구도시인 욧데보리를 들른 것은 여행 6일째인데 오후에 도착하니 비가 내리고 있다. 일요일 오후라 거리도 물론 한산한데 공업도시라는 인상이 확와 닿는다. 며칠째 한국음식을 구경을 못해 놓으니 이구동성 우리나라 식당한번 가보는게 소원이란다. 결국 짜낸 대안이 한국음식점이 없는 욧데보리에서 차선의 선택은 세계 어느 도시에나 있는 중국음식점 이었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중국음식의 맛은 며칠동안 먹는 순서조차 잘 모르는 북유럽 뷔페식단의 고단함을 한번에 쏴악 씻어가 버린다. 아! 익숙한 것의 편안함과 안온함이여!

바. 빙하와 피요르드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 국제고속철도 X-2000으로 오슬로를 가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오슬로로 이동하는데 X2000이라는 국제고속철도를 탔는데 차창 밖으로 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스웨덴의 평원 풍경에 스웨덴이 산속에 있는 조그만 나라쯤으로 생각했던 선입관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이래서 백문이불여일견이라 했구나!

차창밖 농경지가 아닌 숲의 풍경은 기후적 특성으로 인해 나무들이 가늘고 곧게 위로 뻗을 수 밖에 없다. 덴마크를 제외한 북유럽 백인들이 팔다리가 길고 허리가 짧고 키가 제일 크다고 했는데 어쩌면 이 나라의 나무들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북유럽의 나무들이 짧은 여름기간에 한뼘이라도 더 많은 햇빛을 받기 위해 위로 위로 길어지는 것처첨 북유럽 사람들은 여름휴가가 오면 태양이 넘치는 남유럽으로 줄지어 줄지어 여행을 떠난다나....

□ 자연주의 관광정책이 주는 교훈

노르웨이는 스웨덴 덴마크와 더불어 바이킹이 건설한 3대 국가이다. 이중 가장 지형이 험한 나라가 노르웨이인데 아마도 그것 때문에 바이킹을 생각하면 덴마크나 스웨덴보다 노르웨이가 자연스레 연상된다.

바이킹은, 해적, 약탈, 침략 등 왜곡된 이미지로 알려졌지만 그것이 전혀 아니고 원뜻으로 '만의 사람들', '만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이 바이킹의 후예들은 현재 빙하와 피요르드의 땅에서 자신의 땅과 숲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려나가는 자연주의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5일제가 정착된지

오래이며, 개인주의가 발달한 북유럽 국가들에서 관광은 개발형 관광이 아닌 자연 친화형 관광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비해 소비문화가 소비형 관광이 발달하지 않은 까닭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송네 피요르드로 가는 길에 무려 6시간 30분이나 버스를 탔는데 그시간 동안 스친 노르웨이 풍경중 난개발이라 생각되는 곳은 어느 한곳도 보지 못했을 만큼 나라가 깨끗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다. 노르웨이에서 제일 긴 120Km의 송네 피요르드의 멋진 풍치는 감탄사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지만 한편으로 노르웨이인들의 환경보존과 자연관리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었다.

노르웨이 관광에서는 묻지 말아야 할 것이 세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가 호수의 숫자, 둘째 폭포의 숫자, 세 번째 동굴의 숫자라고 한다.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셀 수 없기 때문이라나.

이에 비해 우리 목포시는 도시의 특성상 탁월하고 웅장한 자연풍치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산과, 강, 바다가 어우러진 장점을 십분 살린다면 누가 오든 좋은 느낌을 줄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가꾸고 보존하며,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하느냐가 문제이다.

미항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워터프론트를 정비하고 갓바위 관광벨트를 활성화 하며, 유달산과 삼학도를 잘 정비하고 복원하는 일은 단순히 행정의 책임만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일이 되어야만 성공 가능한 일이라 여겨진다.

□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을 지나며

우리나라 서울의 지하철 공사에서도 노르웨이의 기술자들이 와서 작업을 한다고 한다. 그만큼 노르웨이의 동굴 굴착기술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산과 협곡이 많는 노르웨이에서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굴착기술이 발전할 수 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든다.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 긴 터널이 12km가량 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보다 배가 더 긴 24km의 터널이 새로 노르웨이에서 뚫렸고, 우리는 이 두개의 터널을 지나 송네 피요르드의 시작점 플름에 갔다.

자연을 아끼고 거기에 순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을 개조하고 지배해온 인간의 위대한 힘을 노르웨이 인들의 세계에서 가장 긴 동굴 굴착을 보며 새삼 느끼게 된다. 세계에서 제일이라는 것에 반드시 매달릴 필요는 없겠지만 인구가 겨우 500만이 되는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일류의 기술을 한가지라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라 사람들의 지혜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인만큼 우리 목포 또한 세계를 향해 어떤 것을 일등실력으로 일류상품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생각해 본다.

□ 역시 사회민주주의와 복지의 나라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의 최대의 힘은 사회민주주의에 기반한 수준높은 사회복지의 실현에 있다고 한다. 핀란드와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 있어 18세까지 무상교육이며, 대학 또한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출산휴가는 유급으로 1년이며, 실업연금은 8개월을 지급한다. 이러한 복지예산은 노르웨이의 3대 산업인 석유와 수산업, 임업 등에서 재원이 나오며, 세금 또한 50%에 달해 이로부터 복지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된다.

복지예산의 과다 배분으로 인해 일하지 않고 차라리 놀아 버리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복지를 축소하고 경쟁부분을 강화하자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북유럽의 사회복지와는 상당한 수준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또한 지속적인 개혁속에서 빠른 시일내에 북유럽의 복지수준을 능가하는 창조적 사회복지가 이뤄지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오슬로의 밤거리를 가다.

인구 50만의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는 13세기부터 시작된 유서깊은 역사도시이다. 필자는 스톡홀름에서 오슬로에 도착한 첫날밤 동행한 기자분과 함께 셔틀버스와 전철을 타고 밤 10시경에 오슬로 중앙역에 나왔다. 여행단 일행중 몇사람과 같이 가자고 했으나 지원자가 없어 그냥 둘이 나오게 되었다.

노르웨이 중앙역까지 나오는데 30도 밖에 안걸리는데 물가가 비싼 북유럽이 아니랄까봐 두명이 나오는데만 교통비가 우리돈으로 50,000원 이상이 든다. 석유가 나오는 나라에서 교통비가 비싸다니 참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어쩌랴! 여긴 내나라가 아니니 어디가서 항의 할 수도 따질 수도 없고,,,.

사실 북유럽은 4월부터는 점차 백야현상이 시작되어 8월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한밤중에도 훤하다. 우리가 공항옆 숙소에서 셔틀버스를 타는 시간이 밤 9:30분 이었는데도 밖이 훤했고 10시가 되어서야 어둑어둑 해졌다.

토요일 밤 오슬로의 중심지역 제일번화가의 이름은 요한슨 거리인데 토요일밤 요한슨 거리는 젊은이들로 붐빈다. 북유럽은 금요일까지는 공식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다가 주말에 술을 마시는 문화라고 한다. 많지도 않고 군데군데 있는 맥주집들은 인도에 설치한 테이블까지 젊은 손님들로 가득하고, 활기에 넘친다. 우리나라처럼 술문화가 발달하고 많이 마시는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술집들이 별로 없다.

거리에서 꽃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재미있게도 남자들이다. 반대로 여학생들로 보이는 이들이 구두를 닦으라고 손님들을 부르고 있다. 필자의 눈에 직업적인 구두닦이로 보이지 않으니 신통치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의 거리처럼 한집건너 술집이고 옷집이고 하는 거리풍경과 문화가 아니다 보니 요한슨 거리를 제외하고는 11시가 안되었는데도 거의가 문을 닫은 상태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상업을 하는 우리나라와 시간되면 정확히 문을 닫아버리는 북유럽의 상업의 차이는 역시 복지의 힘이 아닐까 생각하며 길을 걷는다.

한무리의 사람들이 극장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얼핏봐선 극장인지 잘 알수가 없다. 극장 느낌의 간판이 없는 까닭이다. 하여튼 북유럽의 간판문화는 정말이지 깨끗하고 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간판문화를 생각해보면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및 도시관리와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고, 설치자의 자유이다. 그러나 오슬로를 비롯한 북유럽 도시의 간판들을 보면 전체가 작거나, 질서정연하고 간단하며, 예술적이다. 무조건 크고, 덕지덕지한 것이 아니다. 거리를 아름답고 매력있게 만들려면 도시관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간판을 잘 정비해야 한다는 말이 피부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극장옆 길거리에 젊은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 노숙자로 보이지는 않았는데 후에 가이드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구걸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처럼 마약이 엄격히 규제되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도 기분낼겸 맥주집에 들러 기분좋게 한잔씩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슬로 중앙역을 다시보니 오래전에 지어진 역사를 그대로 두고 그옆에 신역사를 만들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지난번에 지나칠때는 몰랐는데 어찌하다보니 두 번째 지나갈 때 보인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같으면 옛 건물은 부셔버리고 전체를 새로 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 옛것과 새것의 조화로운 공존, 이것이 북유럽의 도시에서 만난 건축물들의 교훈이다.

오래된 것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큰 가치를 지니는 건축문화, 도심문화가 오늘의 북유럽 도시풍경을 역사도시로 거듭 태어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과 도시관리는 언제쯤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갈까?

8박 9일 동안의 짧은 북유럽 여행에서 야간에 시내의 거리를 구경하고 문화를 느낀 시간은 노르웨이 오슬로 요한슨 거리에서 딱 한번으로 끝났다. 이것마져 없었다면 필자가 북유럽을 언제 나녀왔나 싶을 것이다. 시간과 일정에 쫓기는 여행이 주는 밋밋함이다.

□ 비겔란드 조각공원에서

오슬로에는 한국에 잘 알려진 초현실주의 화가 뭉크의 작품이 있는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 또 진보적인 지식인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날카로운 시각과 글솜씨로 잘알려진 박노자 교수가 오슬로 국립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다. 여행단에서는 출국하기전 오슬로 현지에서 박노자 교수를 초청하여 노르웨이의 지방자치에 대해 조금이라도 듣고자 시간을 요청했으나 본인의 다른 일정으로 인해 희망사항으로 끝나고 말았다.

오슬로를 떠나기 전에 들른 비겔란드 조각공원에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조각 작품들은 인생사에 대한 주제와 철학이 분명하고 작품의 예술적 우수성이 탁월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사람의 작가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인간이 생명을 갖게 된 때에서부터 고뇌, 노년이 이르기까지 7단계의 과정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 비겔란드 조각공원을 우리 목포의 조각공원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때 작품의 규모와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 일관성 있는 비겔란드 조각공원 작품과 현상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면이 있긴 하나 향후 유달산 조각공원의 조각작품에 있어서도 주제와 테마를 체계적으로 정해 작품을 선정하고 전시를 한다면 방문객들의 관심과 호응도를 더욱 높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사. 섬나라 덴마크

□ 북유럽의 융성했던 덴마크 왕국

덴마크는 한때 6개국을 거느릴 정도의 융성한 왕국이었으나 스웨덴, 노르웨이 등이 차례 차례 떨어져 나가면서 현재는 그린랜드만 남은 상태가 되었다. 15세기에 세워져 지금까지 존속되는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왕가는 실권은 없는 상징적인 존재이긴 하지만 국민들로부터 압도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덴마크 왕세자와 호주의 평범한 아가씨와의 결혼으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정치적으로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의 토대가 된 이곳에서도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이 입헌군주제가 존재한다는 점은 역설적이긴 하지만 왕조 역사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실제 힘이 아닌 하나의 기호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 덴마크의 농업이야기

덴마크 본토는 우리나라 남한의 반정도 밖에 안되는데 본토 면적의 60%가 농경지로 경작될 정도로 낮은 구릉지대로 이어져 있어 농업이 발전하였다. 농민은 전체인구의 7%에 불과하나 농업경쟁력이 매우 높고 사회에서 우대받는 직업군에 속한다고 한다. 농민은 누구나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학교 또는 농업대학을 나와야만 될 수 있다고 한다. 이곳에서 일반적으로 직장인의 정년이 60살이라면 농민은 정년이 55살이라고 한다. 힘든 일을 하는만큼 사회와 국가에서 정년 연령을 낮추어 일찍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고 한다.

북유럽의 특징이 직업에 따른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고 평생직업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그것이 사회적 안정으로 연결된다고 볼때 농업인을 우대하고, 노동강도가 쎈 직업군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수 등으로 보상하는 것에 대해 우리사회 또한 사농공상식 직업문화의 개선에 대해 생각해 본다.

□ 사회민주주의의 꽃 사회복지

덴마크에서 가이드의 소개로 코펜하겐으로 가는 길에 양로원에 들르게 되었다. 덴마크에서는 정년이 넘어 본인이 원하면 양로원에 들어가 생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스스로 건강을 지키면서 혼자 살기를 원하거나, 아픈 몸인데도 양로원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면 간병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가 방문한 양로원은 목포 인근에서 보듯이 약간은 수용소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 무척이나 깨끗하게 관리되는 아파트 같은 느낌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갈수록 노년을 자녀에 의존하기 보다 독립적인 생활형태를 유지하거나 원하는 노인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핵가족 시대 노년의 생활형태가 의존형에서 독립형으로 변해가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가족과 생활형태에 발맞추어 노인복지시스템과 제도도 실질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 고뇌하는 코펜하겐 시청사 처마밑 흉상

코펜하겐 시청사 대문 입구 위 처마밑에는 인상을 잔뜩 찌뿌린 흉상이 여럿 있는데 그 의미는 시민의 세금을 걷어 시를 위해 쓰려는데 너무 골치가 아파 고민하고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모습을 형상화 한 것이라고 한다.

사소한 흉상에 그쳐 버릴 수 있지만 국가와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정치지도자들, 공직자의 책무의 막중함을 나타내주는 시설물 하나하나의 세심한 배려와 고민이 돋보인다.

□ 여행중에 만난 한국식당

앞서도 언급했지만 여행중에 한번씩 만나는 한국식당의 음식맛은 정말 꿀맛이다. 북유럽의 음식은 빵과 감자, 그리고 육류가 중심이다. 그러다 보니 여행단원들에게는 평생 먹어온 우리 음식이 간절히 그리울 수 밖에... 그런 속에서 한국음식을 먹으니 음식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우리나라 식당에서 음식을 먹는다면 정말 많이(?) 남을텐데....

유럽의 음식은 우리나라 음식보다 훨씬 간단하고 물기가 적어 음식물 쓰레기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 현재 우리 목포시는 음식물찌꺼기 공공처리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역주민과 시간에 갈등을 빚을 정도로 음식물찌꺼기의 합리적 처리가 시행정의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

유럽의 식탁을 보면서 느낀점은 우리의 음식문화도 조금씩 바뀌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가정에서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Ⅳ. 종 합 연 수 소 감

이국적인 문화와 풍물을 접한다는 점은 기쁜일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겉모습과 형식만 보고 말아 깊은 내용과 본질을 볼 수 없어 피상적 수준에 멈출 우려가 있다. 해외여행이 그런 우려를 피할 수 없는 점도 또한 현실이다.

해외여행단원 모두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인식하면서 이번 여행에 임하였으며, 쫓기는 시간과 많은 이동거리 속에서도 북유럽의 풍물과 모습을 담고, 그 쪽의 특징과 장점들을 우리 목포에 연결할 수는 없을까, 배울점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9박 10일이라는 한정된 일정속에서 북유럽 4개국의 모습과 풍경은 우리와 달라도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북유럽 국가와 국민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으며, 서양적 정서와 풍물속에도 사람중심의 복지사회를 이룰려는 눈물겨운 노력과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발전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북유럽 4개국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지방의회의 규모와 의원의 선출방식이다. 이곳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5천명에서 1만명 규모가 일반적인 규모일정도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마을단위까지 형성되어 있는 점이다. 목포로 말하면 한개의 동규모에 지방의회, 자치단체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동까지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고 있지 않고, 동사무소 수준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나 진정한 자치의 수준에 도달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하나의 과제로 선정하고 지방자치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공동 협력속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할 점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인물중심의 정치문화가 아닌 정책중심, 정당중심의 선거문화도 우리가 배워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대선거구, 전원 비례대표로 선출되는 조건이다보니 개인중심, 인물중심의 선거문화가 가져오는 폐해인 불법선거운동, 부정선거운동 등의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선거자금을 많이 쓴 것이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지방자치 문화가 정착되어 있고 꽃피우고 있다는 점이다.

2. 자연자원의 보존과 활용

북유럽 4개국 여행중 환경과 관련한 가장 놀라운 것은 정치적으로 녹색당이 제2당, 또는 3당의 위치를 확고히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녹색당의 진출은 단순히 환경운동세력의 정치진출이 아니라 생태주의적 접근법으로 도시와 문화를 바라본다는 점일 것이다. 뿐만아니라 어떠한 정책결정이든지 간에 환경적 관점에서 새롭게 정책을 바라보게 됨으로써 정치활동이 단순한 고용창출과 경제문제의 극복 등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의 유지, 지속가능한 개발의 관점에서 국민과 국가를 새롭게 세워간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도 분배의 문제보다 성장의 무게에 비중을 두는 사람들이 많은 실정인데 환경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북유럽 국가들에서 느낀점은 난개발보다 자연자원의 있는 그대로의 보존에 무게를 둔 환경관리라는 측면이다. 이른바 환경이 자산이고 환경이 돈이자 가장 가치있는 상품이 된 것이다.

이점은 북유럽 4개국을 여행하면서 내내 느낀점인 바 관광에 있어 자연주의 관광이 중심이 되고 시설위주, 규모위주의 관광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지역에서도 개발형 관광에 막대한 억지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는데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살리면서도 개발에 매몰되지 않는 관광정책, 환경정책을 강화시켜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자 한다.

3. 역사 문화자원의 보존과 활용

사회민주주의 정치세력이 이들 나라 정치의 주류세력인데도 군주제가 유지되고 있고, 사회복지 국가를 건설해 온 것이 북유럽 4개국의 현대역사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곳에서도 과거 식민지배의 흔적을 그대로 남겨놓고 관광과 교육, 현대정치에 활용하는 점이나, 도시를 성장시키면서 옛것을 그대로 살려 도시의 특색으로 승화시켜 내는 노력 또한 공통된 특징이다.

오래된 건축물이 도시계획 도로를 위해 과감히 없애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건축물 자체가 도시의 예술이 되고 관광자원이 되는 점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느낀 대표적인 교훈이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뒷골목을 가졌다는 문구는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답답하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크나큰 자부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목포의 역사문화자원에 관한 정책을 볼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교훈으로 생각된다.

옛것을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지키고 보존할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목포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더불어 시민의 자주적인 자각과 참여 또한 도시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지키고 가꾸는 원동력이다.

4. 시민의식과 질서

목포시의회 여행단이 방문한 북유럽 4개국은 전반적으로 인구가 적고, 부패와 부정이 없다시피한 투명성 세계 1,2위의 국가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인구가 적은들 국민들의 의식이 문제가 있다면 왜 문제가 없겠는가?

한나라의 정신세계의 수준이 그나라 국민의 수준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지표라고 볼때 북유럽 4개국이 세계 최고의 투명국가, 복지국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가 된 원동력은 결국 시민의식이라고 본다. 공무원에서부터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민주적인 시민의식,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가 보편적 사회의식으로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의 안정성과 발전성이 높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현대민주주의를 참여민주주의라고 했을때 시민의식 또한 참여민주주의 측면에서 이해되고 검토되어야 한다. 북유럽 국민들의 고지식하다고 할 정도의 높은 질서의식, 노동주의, 투명성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교육기관 뿐만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수용해야 할 가치체계로 보인다.

5. 높은 세금과 사회복지

복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평등에 관한 문제이며, 돈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 그래서 복지를 하려면 돈, 즉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이것이 북유럽의 복지재원에 관한 단순한 이해일지 모르지만 국가가 평등의 문제를 복지로 개입하는 현대사회의 부의 재분배 방식은 아직까지 인류가 평등을 지향하면서 개발한 가장 합리적이며 설득력 있는 방법중 하나이다.

세금이 수입의 50%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 4개국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는 확고하며, 조세저항이 적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정부와 국가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신뢰로 보인다.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복지의 문제는 돈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만 의존하는 복지는 한계가 있음도 명확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 안전망의 구축 또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지향해야 할 하나의 영역이다.

덧붙여 당장 우리 지역사회가 덴마크 등 북유럽의 복지를 기계적으로 도입할 수도, 적용할 수도 없다. 그쪽의 가치와 노력,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검토하고, 연구하면서 우리지역의 복지역량을 한단계 한단계 차근차근히 올려나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6. 항만해양의 관리와 이용

선입관에 북유럽 하면 눈과, 산과 피요르드 정도로 언뜻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여행단이 방문한 북유럽은 바다의 나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다와 호수의 나라다. 그런만큼 수력이 풍부해 노르웨이 등은 수전력을 생산하여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바이킹이라는 역사적인 용어가 탄생한 것도 바다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들 국가들은 예부터 바다와 호수를 통한 물류, 수산업, 조선업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들 국가의 산업중 조선업과 해운물류산업은 여전히 경쟁력이 높은 국가의 주요 산업이라고 한다. 또한 복지시스템과 높은 국민소득 수준으로 인해 조선의 수요중에서도 크루즈 선박, 요트 산업이 앞서고 있는 것은 사회의 경제수준과 발전 정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라 생각된다.

우리시 지역은 항구도시답게 조선업과 해운운송업이 발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변화하는 사회추세에 맞게 새롭게 디지털화 되고 전문화시켜 지역내 내수시장의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닌 세계를 무대로 한 경쟁력을 갖추지 위해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

일시적인 중앙정부의 예산확보 차원이 아닌, 지역내 산·학·관·민이 고유의 역할분담과 노력 속에서 조선업 등 우리 지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다가오는 새시대에도 여전히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동시에 요청된다.

7. 도로, 교통에 대한 단상

이번 여행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곳은 아마 호텔이라기 보다 버스안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비행기와 배 몇 번을 제외하곤 대부분의 시간을 버스속에서 이동으로 보냈다.

겨울이 길어 일찍 어두워 지거나 백야가 있는 곳이다 보니 주간 전조등이 자동차 운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우리가 이용한 덴마크 관광버스는 나이 드신 분이 운전하였는데 과속이라곤 관계가 없고, 운전중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철저하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지역에서도 교통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함께 이곳 북유럽에서는 운전수와 같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는 이들의 보수가 교수나 의사의 보수와 결코 차이가 많지 않다고 한다.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하는 이들에 대한 대우와 지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자부심 또한 높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생업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소수를 제외하고 “딱히 할게 없으니까”라는 시각임에 반해 북유럽의 이러한 진보적인 직업문화는 우리사회에서도 본 받아야 할 교훈이다.

또하나 북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전거 문화가 발전되어 있다. 자동차 보급률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율 또한 높은 점은 단순히 평평한 지형이 많아서 뿐만아니라 허례허식과 낭비를 지양하는 이들의 소박하고 건전한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점이 더 크다고 한다.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차의 용량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와 생활을 더욱 건전하게 유지해가는 북유럽의 자동차와 자전거 문화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정신이 어디로 지향해 가야 하는 가를 알 수 있다.

8. 자유로운 국경을 보며 생각한 통일

북유럽 자동차 문화의 또하나의 특징은 철도와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철도는 이미 국가들간에 고속철도로 왕래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국경 왕래는 완전 자유왕래의 수준이다. 덴마크에서 스웨덴으로 출퇴근 하면서 살거나 반대로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분단 50년을 훌쩍 넘기고서도 자유왕래마저 어려운 우리 민족의 현실을 볼때 국경이 있지만 사람들의 삶에 제약을 두지 않는 북유럽의 자유스런 모습은 통일을 향해 가는 우리 민족을 부끄럽게 한다.

현재 목포시에서도 목포·신의주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통일운동 단체들이 활동중에 있다. 이들의 노력이 매년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지역사회의 노력이 전체 민족의 통일염원으로 합해지고 승화되어야 한다.

통일은 결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다. 분단의 장벽은 스스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허무는 것이다. 지역사회다 보니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휴전선 부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가슴속에서 한발한발 온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난번 북한 용천참사돕기 운동에서 보여지듯이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고 함께하는 통일운동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9. 이번 여행에서 미흡한 점

이번 여행은 매우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가지고 추진한 연수형 여행이 아니다 보니 정책적 측면에서의 자료수집과 체계적 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행 과정에서 단원 전체가 일관되게 목포시를 생각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느낀점을 정리하였다.

일정의 제약, 현지 방문대상지의 선정 미흡, 언어의 제약, 문화와 환경의 차이 등은 이번 여행단의 구조적인 한계점이었다 판단되며, 이번 여행을 통해서 체득되고 얻어진 많은 정보와 견문은 의정활동과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V. 주 요 활 동 기 록

【 핀란드 헬싱키 호수의 자작나무 앞에서 】

▷ 잎과 가지는 사우나 재료, 껍질은 자일리톨 껌원료,
나무는 목재로서 하나도 버릴것이 없다는 자작나무 ◁

【 1800년대 호텔을 개조해서 사용하는 헬싱키 시청사 앞 노점 광장에서】

【 핀란드 헬싱키 시청 방문 - 시의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는 관계국장】

【 핀란드 헬싱키의 루터교회 앞 광장 】

▷ 뒤의 동상은 핀란드를 150년 식민 통치한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 동상 ◁

【 예술성으로 유명한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앞 광장에서】

【 스톡홀름 시의회의 80년 된 회의책상과 의자 앞에서 】

【 노벨상 수상 후 파티가 열리는 스톡홀름 시청사 안뜰 마당에서】

【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사 앞에서 】

【 덴마크 코펜하겐 시청사 앞에서 】

▷ 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쓸것인가?
고뇌하는 조각상 ◁

【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왕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 왕궁앞에서】

【 정치적 중립국을 표방하는 덴마크에서 6.25당시
우리나라에 파견한 병원선이 출발한 기념비석】

【 덴마크 헬싱고리 항구의 선박도구 야외전시장에서 】

▷ 시민공원 기능과 선박 야외학습장
기능을 동시에 활용◁